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서 4일~9월 27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업무협약 순회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7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한 순회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전시 내용을 두 개의 이동형 '기억상자'에 담아 지역 시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보다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돼 27년간 국내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수립과 활동, 환국, 계승의 흐름에 따라 소개한다.

전시는 두 개의 기억상자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억상자 '우리나라 최초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임시헌장 제정의 의미를 소개한다. 이어 광복에 이르기까지 외교와 군사, 행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펼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살펴봄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뿌리로서 임시정부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한다.

두 번째 기억상자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에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환국 과정을 비롯해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과 국호, 태극기, 애국가, 국가기념일 등을 계승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역사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전시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역대 수반, 주요 활동 연표 등을 담은 패널을 함께 구성해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7년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은 군산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군산 시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가까이에서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민호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포스터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 세계에 알렸다

전주문화재단, 'MyK FESTA' 서 실제 대통령 표창장 인쇄 작품 전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를 '2026 MyK FESTA'에서 선보이며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렸다.

1일 재단에 따르면, 전주문화재단은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6 MyK FESTA'에 참가해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에 실제 대통령 표창장을 인쇄한 작품을 전시했다.

'MyK FESTA'는 K-컬처 콘텐츠와 문화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문화와 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는 조달청 지원을 받아 정부조달문화상품 정책과 나라장터 등록 우수 문화상품을 소개했으며, 전주문화재단은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를 전시해 국내외 관람객과 바이어들에게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알렸다.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는 전주문화재단이 품질 기준과 제작 방법을 연구해 전국 한지 장인들에게 보급한 제품으로, 국내산 다투어와 전통 제작기법을 활용해 생산된다.

기술적 완성도와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정부포상증서 제작에 활용되고 있다. 전주문화재단은 전통한지의 수요 확대와 활용성 증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부



조달 전통문화상품 선정업체 자격으로 전국 한지업체의 전통한지를 수매해 왔다.

수매한 한지는 전통 가공기법인 도침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총 1만2천 매 규모의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로 공급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에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을 실제 인쇄해 전시함으로써 뛰어난 내구성과 고유의 질감,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선보였다.

/김재훈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월드뮤직 레저콘서트' 3회차 성료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최철, 이하 소리축제)가 25주년 특별기획으로 선보이고 있는 '월드뮤직 레저콘서트'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3회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본 축제를 앞둔 문화예술 향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월드뮤직 레저콘서트는 소리축제의 양대 축인 판소리와 월드뮤직을 보다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전 붙임 프로그램이다. 공연 중심의 일반적인 콘서트와 달리 각 분야 전문가의 해설과 고해상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음악이 탄생한 역사와 문화, 장르적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새로운 형태의 레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일 첫 번째 시간에서는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가 판소리의 역사와 미학을

인생을 바탕으로 소리꾼의 삶과 판소리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회차마다 사전 예약이 빠르게 마감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음악 장르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이해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단순한 강연을 넘어 음악과 문화, 역사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는 구성은 월드뮤직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제 월드뮤직 레저콘서트는 7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전주 영화정보도서관에서 4회차를 개최해 마무리됐다. 마지막 강연은 황윤기 월드뮤직 평론가가 진행했으며, 그의 저서 <포르투갈의 노래 파두>를 바탕으로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인 '파두(Fado)'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음악적 특징을 깊이 있게 소개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NEXT-소리프론티어' 본선 진출 4팀 확정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최철, 이하 소리축제)가 최근 진행된 '2026 소리NEXT-소리프론티어' 2차 실연 심사를 마치고 최종 본선에 진출할 4개 팀을 확정했다.

'소리프론티어'는 전통예술 음악 분야의 창작자와 단체를 발굴·육성하고 국내외 공연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리축제 대표 인큐베이

팅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 축제'의 일환인 '소리NEXT' 사업과 연계해 창작자와 공연시장을 잇는 성장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지난 공모모집에는 전국 각지의 전통음악 기반 창작자와 단체들이 지원했으며, 음원·영상

심사를 통과한 팀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2차 실연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은 예술성과 독창성, 발전 가능성, 국내외 시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황진아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 △로름새 △오드리 등 총 4개 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했다.

본선 진출팀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합숙형 워크숍 '슈퍼워크'에서 전문가 1대1 멘토링, 강연, 토크를 거쳐 8월 12일~13일 본선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다. /이만호 기자

익산 매력 담은 기념주화로 추억 선사

소리문화금고서 소리문화금고·미륵사지 석탑·마룡 담은 기념주화 3종 판매

익산의 대표 관광명소와 캐릭터를 담은 기념주화를 소리문화금고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복합문화공간인 소리문화금고에 기념주화 자판기를 마련하고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념주화 자판기는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소리문화금고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판기에서는 △소리문화금고 △미륵사지 석탑 △익산시 관광캐릭터 '마룡'을 담은 기념주화 3종을 각각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념주화는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장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념주화 자판기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소리문화금고를 찾는 즐거움을 더하고 익산민의 문화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주화 자판기가 설치된 소리문화금고는 1925년 건립된 국가등록문화유산 옛 이리금융조합 건물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이다. 해방 이후 등기소와 전북은행 이리지점으로 사용되며 지역의 근현대사를 함께해 왔으며, 현재는 전시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